한약재 밀수적발 급증

해역상시검문 단속강화키로

중국산 농축수산물과 한약재에 대한 밀수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의 수입 농축수산물 밀수적발 실적은 모두 5백43억원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2%가 급증했고 한약재 밀수적발 실적도 19억7천만원으로 무려 1백48%가 급증했다.

중국의 농축수산물과 한약재 밀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한·중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흑산도 부근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중국 어선들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중국산 농축수산물과 한약재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부산·인천·목포세관에 해양밀수단속본부를 설치하고 해군 및 해경과 합동으로 중국어선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서 상시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밀수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항구와 포구에 대해 수시순찰을 실시하고 어촌계장 등 지역실정에 밝은 민간인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밀수관련 정보 수집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축협 등과 인삼농협 등 한약재는 담배인삼공사 등과 합동으로 주요 보관창고나 가공공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경동약령시 지정 선포식 행사.

경동약령시 기념 축제

기념표석제막 약썰기대회등 다채

서울 경동약령시협회(회장 윤영진)는 25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한약상가에서 조순 서울시장 박상천 국회 보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한약시장인 약령시 지정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 이어 기념표석 제막 순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경동한약상가 회원을 비롯해 한국생약협회·한국한약도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서울시 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의 동대문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각계 인사 5백여명이 참석했다.

윤영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령시지정을 계기로 상가내 한약재 도매시장과 한약재 상설전시관, 한의약문화원, 한방백화점 등의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 이 지역을 서울의 명소이자 세계적인 한의약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동한약상가는 지난 60년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돼 현재 7만여평에 한의원 한약방·약재상 등 9백여 업소가 들어서 전국 한약재의 70%를 유통시키고 있다.

수집상 등록 제도 조기정착위해

출하선도자금 지원

농림수산부는 지난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집상 등록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출하선도자금 2백억원을 농안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달 20일, 소위 발떼기 상으로 불리던 산지수집상이 대부분 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연계돼 이들로 부터 선도자금을 받아 수집활동을 해왔으나 수집상 등록제도의 시행과 상장경매제도의 정착으로 수집상들의 농수산물 수집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하선도자금 2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 수집상 중 최근 1년간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한 실적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우수 수집상이나 20억원 이상을 출하한 법인으로 연리 8%, 1년 상환조건이며 농수산물을 유통공사를 통해 육자지원 된다.

지원한도는 개인의 경우 5천만원, 법인은 5억원으로 생산농어업인과 포전매매등 산지 농수산물 수집 및 출하 선도 육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거래 시장이나 도매시장 개설자의 추천을 받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삼, 당뇨병 치료효과

홍삼의 당뇨병 치료효과가 임상실험을 통해 최초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주최한 한·일 고려인삼학술대회에서 일본 관서의대 타미코 테주다니교수가 논문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타미코 교수는 당뇨병환자 48명을 대상으로 2년간, 홍삼이 뇌혈류에 미치는 영양을 임상실험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임상실험 결과에 따르면, 홍삼을 매일 6g 정도 투여한 환자의 경우, 6개월후 부터 뇌혈류가 증가되기 시작했으며 2년 내내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험은, 환자에게 홍삼을 투여할 경우 적어도 2년간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장애 및 혈관성 치매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한편 당뇨병은 뇌경색으로 발생되는 질병으로, 이번 실험결과 홍삼효능이 뇌속의 피흐름을 촉진시킨다는 추가사실도 밝혀졌다.

뇌혈관장애및 치매발생방지

안테나

누에, 성인병 치료제로

누에분말이나 누에의 오줌·똥·나방등을 이용한 각종 성인병 치료제의 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소장 임수호)는 누에를 이용한 천연활성혈당강하제의 경우 올 1월 국내 특허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일본·중국에 국제특허를 출원하는등 본격적인 생산채비를 갖추고, 최근에는 혈압에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분석, 현재 실험중에 있다고 밝혔다.

누에 오줌의 경우, 통풍에 효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잠사곤충연구소는 올 연말까지 성분을 분석해내기 위해 양잠농민들을 통해 1ℓ짜리 주스병 하나에 2만원을 주기로 하고 누에오줌 50병을 수거키로 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누에똥은 풍비(風痺·뇌척수의 탈로 몸과 팔다리가 마비되고 감각과 동작에 장애를 일으키는 병)를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최근 중국 등에서는 누에똥 베개가 두통이나 불면증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대한 연구도 곧 착수할 계획이다.

누에똥베개 두통이나 불면에 효과

시중유통 중국산 건도라지

아황산염 기준치 초과검출

서울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마른 도라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황산염이 검출됐다.

23일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31개품목 5백45개 식료품을 수거한 결과, 경동시장 D상회가 팔던 중국산 마른 도라지에서 1kg당 아황산염 기준치인 30mg을 17·5배나 초과하는 5백30m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 색깔변화를 막기 위해 쓰는 표백제인 아황산염은 많이 섭취할 경우 기관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제품 사전검사대폭완화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의 사전 검사제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관의 검사를 거쳐 품질합격품에만 판매를 허용했던 이들 제품의 사전검사제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 부터 각 품목 협회 및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자가품질관리 기준을 설정, 업체들이 이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업체는 연차적으로 자율검사토록 할 방침이다.

동양의학 국제심포지엄

경희대학교는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본관대회의실에서 「암과 성인병에 대한 동양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한·중·일 3국의 전통의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동양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등의 연구원 광안분의원의 서주청교수의 「중국 전통의학에 의한 암치료의 방법 및 연구조황」등 총 1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국내지황실태조사 수급조절위원회

지난달 23~24일,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는, 국내 지황생산 실태조사를 위해 경북 김천 상주 등 지황재배지를 시찰.

내방

△정형모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이옥용 이사 △김동근 이사 △이지대 충북 지부장 △김성배 경기 지부장 △배성한 경북 지부장 △이영갑 경남 지부장 △박영임 강원 지부장 △장지홍 이사 △이종렬 이사 △신현석 경기 양평군 사무소장 △우대기 강원 태백시 공판장장 △조광호 강원 정선군 사무소장 △김정동 대전 지부장 △조병섭 충남 청양군 사무소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사무소장 △장영철 전남 광양군 사무소장 △최성기 전남 보성군 공판장장 △정승환 전북 순창군 산무소장 △최상환 경북 경주시 사무소장 △신영달 경북 영천시 공판장장

인사

「퇴」

▲전남 승주군 사무소장 라학주(95년 10월 9일부) 동 이사 의원면직

「任」

▲강원 속초시 사무소장겸 공판장장 박봉순(95년 10월 1일부)